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금일 단기선교팀 기도와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Las Flores(최 문재 선교사), Honduras  
사역: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이민영, 김동수, 김종한,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공동의회 공고: 2018 년 1 월 28 일(주일) 예배후 본당  
안건: 2017 년 결산 및 2018 년 예산, 감사 선출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제직세미나  
일시와 장소: 1 월 28 일(주일) 오후 5 시 / 뉴하트선교교회 (정민철 목사)  
주제 및 강사: 코칭 공동체 훈련 (별지 참조) / 박동건 목사
- 2017 회계년도 세무보고관련 현금내역은 2 월 4 일(주일)까지 완료하여 드립니다.
- 2018 년 교회주소록: 2016 - 2017 년 교회주소록을 검토하시고 변경 혹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부(이영중/홍성훈)에 연락부탁 드립니다. (2016 - 2017 년 교회주소록에  
등록이 안되신 성도님들의 사항은 교적부등록 서류에 준하여 작성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2018 년 1 월 안내 :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윤정호 집사 / 시 147:1-11  
이번 주 친교: 노미라 집사 / 송은주 집사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 황혜영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 10 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전도사  
 봉헌찬송 ----- “종으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마(Matthew)9:35-38;**  
**막(Mark)1:40-42; 눅(Luke)5:17-26** -----인도자  
 설교(Sermon)----- “**주님의 일(3):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 12 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 장 (통 9 장) 1 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35 장(통 50 장) “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111 편 ----- 오영숙 집사  
 찬양(Choir) ----- “거룩한 주”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마(Matthew)9:35-38;**  
**막(Mark)1:40-42; 눅(Luke)5:17-26** -----인도자  
 설교(Sermon)----- “**주님의 일(3):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438 장(통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성(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주님의 일(1): 가르치시며 (마 9:35-38; 사 50:4)**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 전파는 가르침도 좋은 의견도 설득도 호소도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나 마음 상태도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어디 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때가 차서 임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도, “내 아들, 기뻐하는 자”란 음성이 들린 것도 이미 오래전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시 2, 사 42:1-4 참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마 2:2). 성경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변화산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기업을 받을 아들이요 왕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빛난 구름이 덮은 것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인자가(단 7:9, 13-14)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왕이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롬 1:4).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손놓고 있다가 맞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혈통 때문에 그냥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습니다. 혹시 들어도 영원히 괴롭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노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따르는 회개 없이는, 천국 소식은 재앙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대로 심판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행한 바 공로만으로는 아무도 기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 백성들로 의롭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전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대신 징죄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셨기에 그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믿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오는 나라가 복음되었으니 예수 믿읍시다.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구주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니 혹시 몰라 믿는다고 했다 칩시다. 실제 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복 없이 잔치 자리 앉은 이처럼 불편하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실제 그의 나라에서 자유롭고 즐겁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진짜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생은 헛것이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 백성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직 밤이지만 방탕과 도적질을 그치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침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과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이문을 남기도록 사용할 달란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공했느냐 보다도 누구를 위해 일했느냐,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자라라도 주께 하듯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섬김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할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곧 그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영광중에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기쁨으로 맞고 찬송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일은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